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위해 전문학회 4곳과 손잡는다

- 교육부·전문학회·연구기관, 과학적·학술적 근거에 기반해 영·유아기 사교육 인식 개선에 협력
- 신체·건강, 정서·애착, 두뇌·학습, 교육·놀이에 대한 현장의 전문성을 모아 부모와 가정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정보 제공
- 교육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 권역별 학부모 교육 및 정책 토론회 개최, 영유아 사교육 연구 기반 콘텐츠 제작 등 협업 추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2일(금) 영유아기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개의 전문학회와 연구기관(육아정책연구소)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를 비롯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김한석),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학회장 이경숙), 한국인지과학회(학회장 유제광),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학회장 성소영)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 참여한 전문학회는 각각 신체·건강, 정서·애착, 두뇌·학습, 교육·놀이에 대한 현장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교육부와 함께 영유아기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학회명	핵심 분야	핵심 역할
1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신체·건강 영유아의 신체적 성장과 건강한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 성장·발달 모니터링 및 조기·발견 •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 및 건강 정보 제공
2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정서·행동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행동 발달 평가 및 예방·조기 개입 • 부모·교사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지원 • 영유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연구
3 한국인지과학회	두뇌·학습 영유아의 인지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발달 과정과 학습 매커니즘 연구 • 효과적인 학습 환경 및 방법 개발 • 과학적 지식 확산과 기반 기술·콘텐츠 지원
4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놀이·교육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놀이 중심 교육 실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중심 교육 이론과 실천 방안 연구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자료 보급 • 현장 중심 연구와 교육 정책 제언

교육부와 협약기관들은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이가 자라는 속도에 맞지 않는 조기 학습과 지나친 경쟁이 부모의 교육 불안을 키우고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유아기의 배움은 단순히 이른 시기의 지식 습득이 아니라 신체·정서·사회성·인지가 조화롭게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발달 단계에 맞는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별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활용해,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아동의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기 사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이행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모와 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정보를 확산하고 영유아기 배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다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분	협업 내용	시기
챌린지 참여	- 교육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 ※ 교육부장관-육아정책연구소장-각 분야별 학회장-교사-학부모 등	5월~12월
콘텐츠 제작	- 정책 전문지 육아정책포럼(여름호) 발간 ※ 영유아 사교육 정책 동향을 포함하여 각 학회 연구 결과 전반	6월
	- 영유아기 사교육 연구 기반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5월~12월
	- 발달 시기별 올바른 교육 정보 리플릿 제작	11월
소통·참여형 프로그램	- 권역별 릴레이 학부모 토크 콘서트 추진 ※ 중부권(7월), 경상권(8월), 전라권(9월), 수도권(10월)	7월~10월
	- 학회별 연구 기반 포럼, 학술대회 추진 ※ 영유아 사교육 주제 학회 자체 학술대회 포함	6~7월
	- 마이크로 연구 수행 및 정책 토론회 추진	11월
자문	- 영유아 사교육 관련 미디어 제작 송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 사업 관련 자문 검토, 기고 등	상시

특히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과 전문가, 영유아 정신 건강 전문가, 인지 과학자, 유아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기관들은 지나친 지식 주입식 교육이 영유아의 뇌 성장, 정서 건강, 놀이 경험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별 교육 정보와 실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의 배움은 더 빨리 앞서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며 성장의 토대를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모가 불안이 아닌 신뢰에 기반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에 맞는 놀이와 경험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붙임】 1.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전문학회·연구기관 업무협약 체결 계획
2. 교육부·전문학회·연구기관 업무협약서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책임자	서기관	최원석 (044-203-7030)
		담당자	교육연구사	곽유미 (044-203-7032)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전문학회·연구기관 업무협약 체결 계획

□ 개요

- (목적) 민·관·학 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과학적·학술적 근거 기반의 영유아기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도모
- (일시) '26. 5. 22. (금), 13:20~14:1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5층)
- (참석자) 교육부장관, 육아정책연구소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 한국 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인지과학회장,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 (협약 주요 내용) ①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연구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②정책 토론회, 학회, 포럼 등, ③정책 연계 전문 자문 협력 추진

구분	협업 내용	시기
챌린지 참여	- 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국민 인터뷰 릴레이 챌린지 ※ 교육부장관-육아정책연구소장-각 분야별 학회장-교사-학부모 등	5월~12월
콘텐츠 제작	- 정책 전문지 육아정책포럼(여름호) 발간 ※ 영유아 사교육 정책 동향을 포함하여 각 학회 연구 결과 전반	6월
	- 영유아기 사교육 연구 기반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5월~12월
	- 발달 시기별 올바른 교육 정보 리플릿 제작	11월
소통·참여형 프로그램	- 권역별 릴레이 학부모 토크 콘서트 추진 ※ 중부권(7월), 경상권(8월), 전라권(9월), 수도권(10월)	7월~10월
	- 학회별 연구 기반 포럼, 학술대회 추진 ※ 영유아 사교육 주제 학회 자체 학술대회 포함	6~7월
	- 마이크로 연구 수행 및 정책 토론회 추진	11월
자문	- 영유아 사교육 관련 미디어 제작 송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 사업 관련 자문 검토, 기고 등	상시

□ 세부 일정(안)

시간(50분)	주요 내용	비고
13:20 ~ 13:25(5분)	◦ 개회 및 내빈 소개	공개
13:25 ~ 14:00(35분)	◦ 인사 말씀 * 교육부장관 → 육아연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 한국인지과학회 →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14:00 ~ 14:10(10분)	◦ MOU 체결 및 기념 촬영	

업 무 협 약 서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 및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한국영유아 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인지과학회,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및 관련 전문 학회(이하 “협약 기관”)가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시기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왜곡된 인식과 사회적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장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협약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1. 영유아의 발달권 및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2. 정책·연구·현장이 연계된 실행 기반 협력 체계 구축
3.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및 학술적 전문성을 활용한 공동 대응

제3조(협력 내용)

- ① 협약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해 협력한다.
 1. 영유아 사교육이 신체·정서·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 및 공동 연구
 2. 발달 단계별 적정 교육 정보 및 콘텐츠 개발·보급
 3. 대국민 캠페인 및 콘텐츠 공동 기획·확산
 4. 전문가 자문, 토론회, 포럼 및 학술대회 공동 추진
- ② 본 협약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약 기관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4조 (협의 및 조정)

- ①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약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은 각 기관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은 공동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책적·사회적 책무에 기반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협약 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6년 5월 22일



교육부

교육부 장관

최교진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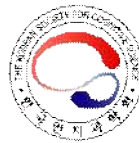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김한석



한국영유아동정신건강학회
학회장

이경숙



한국인지과학회
학회장

유제광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학회장

성소영